

인천항 이용객 100만명 돌파... '사상 최다'

다양한 상품개발·유치 등 효과

인천항만공사는 2019년 6월까지 인천항 여객터미널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100만2000명으로 인천항 개항 이래 최초로 상반기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우선 국제여객(크루즈 포함)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21만2000명(65.4%)가 증가한 5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산동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정부의 단체관광 해제 조치, 3만톤급 이상의 대형 국제카페리의 잇따른 운항 개시와 다양한 이벤트 등의 유치노력 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연안여객의 경우 6만1000명(15.1%)이 증가한 46만7000명을 기록했으며, 양호한 기상에 따른 운항횟수 증가, 다양한 해양관광상품 개발, 지자체의 운임지원 제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이번 상반기 100만 명 돌파는 인천항 개항 이래 의미있는 성과"이며, "대내외 양호한 제반 여건과 맞물려서 선사들 비롯한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등 민·관·공이 합심해 다양한 상품개발 및 유치노력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지금 광주는 '수리·달이' 열풍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식 마스코트인 '수리·달이'가 대회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수리·달이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광주무등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멸종위기종 수달을 형상화한 것이다. 13일 기준 기념품 판매소 9곳의 관련 기념품 판매율은 3천% 이상 급증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광주 남부대학교 정문에 마련된 기념품 판매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식 마스코트인 '수리·달이'가 대회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수리·달이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광주무등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멸종위기종 수달을 형상화한 것이다. 13일 기준 기념품 판매소 9곳의 관련 기념품 판매율은 3천% 이상 급증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광주 남부대학교 정문에 마련된 기념품 판매소.

경기도, 中企 기술탈취 피해에 팔건어

지자체 최초 '기술보호데스크' 사업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지만 법률적 지식과 인력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한 종합적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사업은 ▲전문가상담장구 운영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위한 사후적 지원 등 3개 분야로 추진해 기술탈취 관련 전문가 상담장구는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지식센터에 개설될 예정으로 현재 상담을 전담할 변호사나 변리사 채용이

진행되며 도는 전문가 채용이 확정되는 대로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정책으로는 미등록 아이디어나 영업비밀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임치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 기술탈취 예방교육이 있다. 사후 대응차원으로는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특허공제 가입지원, 건당 5백만 원까지 심판·소송비용 지원, 기술탈취 여부, 계약서 검토, 기술설명자료 사전검토 등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신안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간접일자리 11.7만개 창출"

전남형 일자리 모델로 만든다

민자 50조 투입, 8.2GW급 발전 목표 신항만에 배후단지 개발 정부-한전-지자체 힘 모으기로

전남 신안의 바다에 들어설 예정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전남형 일자리' 대표 모델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45조~50조원의 막대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민간 투자자-한전-정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상시 일자리만 4000개, 간접일 자리를 포함하면 11만 7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봤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남형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블루 이코노미는 전남도가 마련한 미래성장 프로젝트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은 블루 이코노미의 5대 전략 중 블루 에너지에 포함돼 있다.

신안군 해상 일원에 8.2GW급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단순 발전단지에 그치지 않고 산업단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포신항만에 해상풍력 지원 부두와 배후단지도 개발한다.

해상풍력발전단지사업은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송전망 구축 문제로 번번이 좌절됐다.

신안해상에도 송전망을 구축하려면 2조3000억원의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에서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입돼야 하는데 현행법상 민간사업자들이 이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 추진됐던 해상풍력사업들이 좌절됐던 가장 큰 이유였다.

지난 12일 전남에서 열린 대통령 경제 투어에서 이를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한전 등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송전망을 정부와 한전-사업자가 함께 건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전도 사업자 비용을 절감해주고 한전도 설치비가 적게 드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지원부두와 배후단지개발을 위해 기존 목포항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부두를 건설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성공하면 풍력 발전으로 직접 고용되는 일자리만 4000여개가 새로 생겨난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각종 간접 일자리도 10여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임금부담을 줄이는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며 "풍력발전을 좋은 일자리 전남형 일자리의 대표 모델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또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만으로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남도 등과 함께 남해안 관광사업이 국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의 다른 세부사업들도 정부 사업과 2020년 국고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 건의한 내용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블루 이코노미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도민과도 공유하고 확산해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효자된 전북 로컬푸드... 월 77만원 소득 올려

(농업인 1인당)

상반기 직매장서 매출 486.7억 원

전북 로컬푸드가 지역 농촌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2019년 상반기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38개 매장(1,650품목)에서 486억7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464억원) 대비 4.7% 늘어난 것으로, 농업인 1인당 460만원, 월 77만3000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2019년 상반기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도내 농업인은 10,488명,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종사하는 임직원수는 257명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10,488명은 우리 도 농업인 가구(96,780호, '17년 기준)의 10.8%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 통계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공공기관구내 식당 지역농산물 공급도 농업인들의 매출증가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현재 '혁신도시 이전기관, 도청, 도교육청, 도경찰청, kbs 전주총국' 등의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다.

조호일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로컬푸드가 지역농업인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봉채영 기자

김제시 '일자리정보 알림이' 개시

김제시가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구직자간의 일자리 매칭 해소를 위해 '일자리정보 알림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15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시스템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직종·임금·근무형태별 등 맞춤형 일자리정보가 문자로 제공되며, 워크넷에 연결돼 구직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전북 김제=봉채영 기자

군산시, 전통시장 상인 건강도 챙긴다

찾아가는 기초건강검진 실행

군산시보건소는 생업으로 인해 건강에 소홀하기 쉬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의 사업 일환인 전통시장 상인 기초건강검진은 관내 전통시장 6개소(공설시장, 역전시

장, 신영시장, 명산시장, 주공시장, 수산물센터)를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 측정과 함께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수첩, 근육 통증 완화를 위한 한방파스를 제공한다.

올해에는 수산물센터가 추가돼 현재까지 관내 6개 시장 상인 42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북 군산=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16일 (화)

음력 : 6월 14일

수도권 날씨

31 ~ -22°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23 | 해질 / 19:53

연천 20/31, 동두천 20/31, 가평 20/32, 파주 20/30, 서울 22/31, 양평 21/32, 수원 22/29, 용인 22/29, 평택 21/32, 백령도 19/25, 인천 22/2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